

비서의 말로 한강을 건넜다고 들었는데 지금 시내에서 제포 당하였다는 소식에는 아연해 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와서 이 소식을 전해 받자 별로 신통한 수가 나오지 않았다.

과거에 세도가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다.

내 자신, 바깥이든 가족과 해어지면 그대로 무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내로서 그대로 만있을 수는 없었다. 다만 어디에 끌려 갔는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었다.

두 사람은 그 길로 서울경찰서 본부에 달려갔다. 세도가 당당한 내무서원도 그때 심정으로 서는 그리 무서워 보이진 않았다.

「어제 제포 당한 사람을 좀 만나고자 왔습니다만」

「무엇을 한 사람이나?」

「일본서 제일교포 거류민단의 단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여기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깐, 삼화빌딩으로 가보시오.」

삼화빌딩까지 왔었으나 어기에도 보초가 한발짝도 더 들어 보내지 않았다.

모두가 모른다고 시종 이얼하였다. 부득이 나는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고자 배씨 처와 헤어졌다.

졌다.

김 규식(金奎植)박사의 죄후

내가 생각한 것은 김 규식(金奎植)박사였다.

김박사는 일찌기 남국현상을 제창하여 이런 사이이 나자 알장서서 그네들에게 허락하기도 해서 지금은 중요한 스텝이 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들었기에 나는 이 사람에게 부탁하면 어떻게 되리니 믿었었다. 산청동 산마루터에 계시는 김박사네은 고요하고 헌관으로 향한 밤 안에는 낮선은 중대가리처럼 짹짝 짹은 청년이 빠고 끌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나는 이 청년들이 감시원이 아닌가 생각했다.

「아주머님 계세요?」

「뒷문쪽으로 가면 계시니 그리로 가실시오.」

두 사람은 의심도 없이 암내하여 주었다. 많이 와 본 적이라 안으로 속 들어가 복도로 가니 텅 비어 듯 잔잔한 살내에 또락 또락 바둥을 두고 있는 소리가 들려온다.

김박사는 투여위에 서초 바람으로 내책과 바둑을 두고 계시는 모양이었다. 부인은 깜빡거리며 뛰어 나왔다.

「아이 참 어령계 여기까지!」

침착하신 노부인은 나의 손을 끌어 잡아면서 방안으로 들어가시더니 방울을 푸 달이시고 차운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천관에 있는 이들은 감시원이며 어떤 사람이든간에 시끄럽게 조사하는데 잘도 들어 오셨구먼!...」

「아이 우주가 좋았나 보죠.」

「그것은 그렇다고 박선생은?」

「사실은 그 박문에 왔는데, 어제 잠히가신 모양입니다.」

「왜 아직도 남하하시지는 않고?...」

「지도 모를 일언에 김박사님의 힘으로 어떻게 구할 길이 있을 것 같아서 부탁하려 왔는데요.」

「박진이론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이번에도 척일학자 외퇴군들이 선생에게 충무리를 대고 방송을 강요하고 주일이나 헌법한 나머지 겨우 원고를 써 와서 그것을 읽도록 한 것 뿐이지 마이크 앞에서는 여전히 권총으로 위협하면서 제1의 조 만식(曹晚植)이가 되고, 실으면 죄라 하고 꽁꽁 하였던 것입니다.」

박진이론은 자기는 조만식이 되는 두려움이 없으나 나에게 할 일이 있으니 아직 죽을 수는 없다 하시며 결국은 그놈들이 하라는대로 하셨지만 결코 마음이 떠 그들과 협력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렇게 감시원이 꼼꼼 못하도록 말려들어 주일언을 일일히 조사하고 있지 않아요. 하이간 박 열 선생의 생활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으시라고 믿어지니 안심하시고 꿈 후 어려것들을 위해서 또 박선생님을 위해서라도 당신같은 어령계 해서든지 재빨리 일본으로 가도록 마련하세요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사회운동을 전박사와 함께 겪어오신 부인은 나의 일을 저이기 근심하여 금후라도 저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거듭하여 일러 주시었다.

어기에서도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을 깨닫고 그 대로 조소앙(趙素昂)씨를 문암동에 찾아왔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선생댁에도 괴뢰군이 두 사람 감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부인한 말대로 둘러갔다. 부인도 잠자 놀랐다.

「감시원이 있으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하면서 만족한다.

조소앙 씨는 주체의 원으로서 체포당하였으나 최근 이들 전에 나왔다는 소식이다.
겨우 잠시원의 빛물을 타서

박 열(朴烈)이 잡혀 가셨는데 어떻게 좋은 토리가 없으실까요?」

라고 나는 물어 보았다.

하여간 생명에는 철다른 지장은 없다고 짐작되니 안심하십시오. 행운에 입원했는데 박 열씨 가 몸이 순조로우면 돌아오시겠지요!」

조소양씨가 전하는 바깥어른의 소식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물어볼 수는 없었다.

이숙종(李淑鍾) 선생

그 후 과거에 저색이라 생각되면 지인들을 찾았으나 모두가 감시인이 달려있는 판에 일단 끌려간 거처는 절대 비밀이란 것이었다. 이제 내 친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었다.

칠월 21일 경이었다. 모씨로부터 박 열씨와 함께 심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주저없이 그 사람을 찾아갔다. 그 이는 다음과 같이 일러 주는 것이었다.

박 열을 심사한 심사과장이 나의 친척인 것 같다는 것, 박 열씨가 신문(眞門)에 대하여 아내와는 차년 일본서 나온 적에 이혼하였기 때문에 현재 어디에 있는지 일체 모른다 —— 이에 대해 심사원이 무인과 어렸애는 서울에 와 있는 모양이라는 점에, 바깥어른은 담

하기를 —— 와 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지금은 일본에 돌아갈 것이다. 하이간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이었다.

또한 박 열씨는 한번도 석방이 안된채 그대로 청우소에 회송된 것은 전대로 공산당에 협력 할 것을 기부하였기 때문이며, 두번 다시 심사를 받을 여지조차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박 열은 심사한 끗은 서울 국립도서관이며 정치보위부로서 이는 정치범이 심사받는 끗이라고 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도를 찾을 수가 없었다. 박 열씨가 이혼하였다고 말한 것은 물론 없이 가족에 대해 폐물 끼치지 않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나로서는 바깥 어른의 뜻에 순종하여 어디까지나 숨어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나는 남편이 체포된 현재 자기만이 숨어 있고 실은 생각은 없었다.

제다가 나 자신 반공 회복을 쓰고 팜프레드 등을 충간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런 것이 옹당 놈들의 손에 들어가 있다고 치면 박 열의 아내가 아니라도 나의 이름은 그들의 리스트에 실려 있을 것이다. 뒤에, 나의 이 예상이 틀림 있었던 것을 알았으나 그 데의 나로서는 자수하여 어떻게 하든지 남편과 함께를 같이하고 싶은 것은 우월한 양반이었다.

칠월 23일은 박 열씨의 전처(前妻) 자네교후미묘(金子文子)의 기일(忌日)이다. 그

나는 계발 박 열씨를 구할 수 있도록 명월의 빛으로 밤늘에 실을 죄어 그제이로 치운 것을
물에 지나면 염원이 이루어진다는 미신을 생각하고, 막마침 비쳐오는 할빛에 그대로 실을 키
여 남편의 아래 옥 속에 이들을 달고, 그의 웃을 보제기에 싸서 도서관으로 가지고 갔다. 집
을 나오며 어린식모에게

「만약, 밤늦도록 오지 않으면 어린애들을 데려다가, 돈암동 하쓰코(初子)네 집에 가있거
라고.」

고 일리 주었다. 하쓰코(初子), 부모라면 걸려 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태엔 이숙종(李
淑鍾) 선생도 하쓰코네 집에 숨어 있었다.

서울 도서관 앞까지 와 보니 보초가 서 있었다.

「자수만 내무서로 가십시오.」

「정치보위부로 출두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왔는데요.」

「증서는?」

「내무서원이 일리 주셨습니다.」

「그러시면 그 내무서원 동반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하는 수 없이 집에 돌아왔으나, 나의 친척이라는…… 심사과장은 꽉 만나고 싶었다. 고향을
떠나지 어려간 一七년¹⁷⁷⁶, 부모 형제가 아직도 북쪽에 살고 있는지 죽였는지도 모르며 지내온
오늘날 그 친척이란 사람은 과연 누군까? 그것이 정말이라면 만나서 물어보면 알 수 있으리
란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그러기에 다른 내무서에 출두한 생자는 주후도 없었다. 一一三일
생각다 못해 一一六일 다시 한번 나갔다.

그때 학창시절의 친구인 정자가 뜻아와서

「어머나 넌 미쳤나봐. 어린것들을 어떻게 한구……. 자수했다 한틀 박선생님을 만나주게
할는지 박연한데다가 아무리 친척이라도 사상이 나르면 부자간의 의리 조차도 아랑곳 없는
공산당들을들이 너의 말을 들어줄 것 같으니? 내가 그런 일을 하였다 해서 누가 너를 열내라
고 하겠니? 다 부질없는 일이다. 어서 돌아가자.」

여지로 끌려서 유품으로 빠져라까지 왔다.

「그러나 진정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이 근처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박 열씨 부인이라
말을 하지 말고 한번 물어 보자.」

정자와 함께 그 사람을 찾았다.

「보통 가정부임이라면 어려움을 알고, 가면 전신 바마나 조산할 수는 있으나, 박 열씨 부인

인 줄만 알다면 영광없이 살할 것입니다. 미우기 책도 출판하였으니까」
이렇게 그 사람은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단념하였다. 바쁜 어른이 향시 어린 것
들을 걱정하고 계신 것을 알았으므로 그의 뜻대로 박 열 씨와는 관계없는 사람으로서 단독자
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어떻게 서이든 서울을 떠져 나가야만 될 것 같
았다. 전부터 이 속종(李淑鍾) 선생이 영일을 차기가 쉽고 간체니 전에서 부산까지 가자는 말
씀이 있었으나 전지 못하는 두 어린것을 데리고 바지나 잘 용기는 없었다. 남하를 생각하는
한편으로는 아무리 만날 수는 없은 양정 남편이 계시는 서울을 그대로 데려 둘 생각은 손도
들지 않았다.

살벌한 인심

먼저 도치에서 집행된 인민재판의 광경이 머리에 떠올라서 나는 데일같이 헤메이며 군중이
예지어 있는 것이 보이면 인민재판이 아닐까, 혹시 바깥 어른은 아닐까, 마음을 조았다.

인민재판이란 사람많은 집가에서 단상우 만들어 놓고, 미고를 세워 재판판이 미고의 려상

을 잊어졌다. 그리고 예전 물론 밟아온이 없다, 빛ning도 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군중들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농담삼아 입을 놀리는 말도 참작되는 것이다.

「죽여라」「살려라」이 두 판결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죽여라」하는 말이
있으면 그 속에서 종살인 것이다.

살벌한 네에 침울한 사람의 마음은 그런 잡악한 입을 예사로 여기고 있다. 이제는 살인이

란식은 죽여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그 당시의 나 자신도 살인을 뇌라고 생각하는 의식은 이미 상실되어 버렸었다.

부모를 떠나, 형제를 떠나 주는 놈들의 세계에서는 자기 이외의 책임을 아는 어우 조차 없었
다.

전 부녀국장이며 여학교 교장인 박승호(朴承浩) 선생 밖에선 그의 딸들이 모친을 교화 한
다고 하여 흉무소로 끌고 갔다.

그후 박승호 선생의 생사는 지금까지 알 길이 없다. 풍산주의 이외엔 모두가 그들의 적이
다. 그들이 후회할 때 우리 인사의 가족이 젖먹이 아이까지 죽이고 말아 낸 놈들이다. 또 이
우리 인사의 가족을 감시하는 것이 이웃이고 친척이며 그들은 다만 세력에 아첨하기에 굽굽

하여 인생이 빠았기는 것 좋은 예사로 여겼다.

전극(才劇)

어느 날 조장(組長)이 호출하려고 왔다.

「박 선생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나는 완전히 자기 신변을 감추고 있는 줄로만 믿었는데——그 실은 나만이 모르고 있었지, 타인은 모두가 내가 바이오 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레인스의 이런 말을 하였다.

「그이는 원래부터 공산주의자로서 그때문에 일본 감옥에 111년이나 부옥되어 있었으니 지금은 중앙본부서 시장과 함께 일하고 계시죠.」

「아, 그렇습니다. 그걸다면 부인의 생활비 같은 신생님께서 보내 주시겠습니까?」

그리 원래가족은 물보지 않는 부이라 더욱기 이런 놈은 일발민중이 전부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자기 가족만의 생활을 물보아 주는 사람이 아니라서, 나도 별로 남편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 진영의 군선 까닭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농민은 친척이나 형제니 하면서 특권이 있는데 우리 진영에서는 그 단점인을 존중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 자신 혁명가의 아내요, 사상가의 딸로써 말씀 가단을 괴롭다고 생각치 않아요.」

「나, 아니 참, 단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계발 이성동령에도 나와 주셔서 모든 여성의 지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은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학식도 없고 국민학교도 한번 허락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지도한…… 그보다 더이 부인께서 잘 지도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립니다.」

나의 거짓을 몰라서인지 그후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수복 이후에야 비로소 알았지만 그 근처에서는 나를 저색으로 알고, 내가 대원 나가는 것을 중앙본부에 연락하는 줄로만 믿었던 모양이다. 이대로 하늘의 보호랑 것인가 싶다. 공산주의에 있어서는 이런 거짓이 통한다. 그들이 부자이 어제(連繫)는 있어도 종자인 뭉개가 없이므로 상부에 어떤 인물이 있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정체통이 확실치 않을 적이 있어도 하부총에서는 그것을 알리고 도하지 않고 그걸로 신령하는 것이다. 그들의 무지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지

도 중은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염두하지만 다른 일은 모두가 소경이다.
평양 김일성대학의 교수들이 정치공작대로서 서울에 와서 대학교수를 재교육시킨다 하여
장연회가 열린 일이 있었다.

어기 학자들은 특히 공산당에 대해서 온갖 헌신해온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출석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일부 교수의 선명에 큰 기대를 갖고 출석한 모든 사람들은 그 무지랄로(無
知發露)에 벌벌 떨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는 그 장연회에 참석한 어느 친인에게서 들
을 수 있었다.

굶주린 사람들

「개월 넘는 고난의 생활은 사람들로 하여금 극단으로 피곤에 마지게 하였다. 지금은 하이
외 무리를 조차 할리 국군이 몰아오기만 기다리게 된 것이다.

남자들의 징용으로 물자의 배달을 부녀자들이 우발해왔으므로 물가는 앙동으로에 놓인 현
실이었다.

음식물 이외의 구매력은 거의 없었으며 저잣거리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헤메이는 사람들

로 가득 찼었다.

나 자신 공복에 거위 노점에 빌려 놓은 음식물을 끊어보며 배가 부른 기분이 드는 차자도
느끼면서 인간에 대한 히무작을 억누를 길에 없었다.

빈 강통을 거미쥐고 걸식하는 사람이 차라리 부럽기도 하였다.

영양부족에 지쳐 버린 두 어린 것은 이전(痼疾)에 걸려 이도 의사도 신지어 돈도 없는 이에
다만 죽을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몇번이나 몇번이나 「에드콜」을 끄집어내 보면 것일까. 내겐 이제 두 어린 것을 구할 힘
이 없었다.

속처럼 되어 괴롭하게 진중인 물아다니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었으랴. 집에 돌아다면 임
없이 잘풀고 있는 두 어린 것의 눈초리는 이 어미를 원망하는 것만 같아 쳐다볼 기력도 엄지
도 없었다.

「주일간이나 숨어서 피풀이 상점해진 애들은 물어별 기운조차 없다.

거우 손에 틀어온 「구화나정」 경계 낚인이 어린것들을 전거주었다.

회복기에 들어서자 먹고 싶어하는 어린것들을 위해서 바깥이론의 암복을 그것만은 손대이
않으려고 드령과 짚죽의 새를 채워 잔수하였면 겠지만, 이젠 도리 없이 그 암복과 한참을

내어 셀 한 말과 교환할 수 있다는 사람을 믿고 선뜻 넘겨 주었으니 그후 이 사람은 시풀로
발 구하려 미련다는 말만 남기고 헛되이 돌아오질 않았다.

친구에게서 겨우 얕은 살 한 말은 얼마나 얼마나 고마웠던가. 그래서 어떤 것들도 제법 일어
서 짚을 되었다. (영드루)은 또 다시 트렁크 속에 전이 놓았다.

그동안 공습은 치열해지고 집 근처가 빛번 불의 세계를 막았는지 모른다. 그때마다 사람을
은 기운을 되찾았다. 집을 나섰다가는 근처의 불길을 바라보고 어린것들이 걱정스러워서 뭐
어 둔아간 데도 그 햇번이었단가!

사신(死神)은 아직도 우리를 모자 세 사람을 발견치 못하였나 보다.

나의 무려움은 공습도 아니며 떠울 것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놈이요, 광산장의 잔학성이었다.
매일같이 물리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피살되었다는 말뿐. 친구 한 사람은 낙뢰이 정부와
함께 납북한 후 다섯 어린이를 끌고 혼자 집을 지키던 차 그만 폐허군에 끌려간 채 웃삽에서
총살당하였다는 것이다.

뒤에 남은 다섯 어린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미지를 그려어 거리에서 거리로 헤매고 있는
것을 보자 나는 그것이 진코 남의 일로 이겨지지 않았다.

그리면 어느 날 집에서 우연히 계통의 爵位를 슬어 사는 사람을 만났다.

「아아, 부인께서. 이렇게 무사하시고……」

나는 깜짝 놀라고 눈물 지었다.

그 사람은 청년이나 박 열(朴烈)처의 거처를 대라고 헌박을 당하였다고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다.

나는 그래도 미심쩍어 거짓주소를 가르쳐 주고 헤이겠으나 알게 아는 데 조장(組長)이 그
말을 듣고 나를 체포 할는지 알 수 없어서 낮에는 거의 집을 비우다 싶이 하고 밤에는 잠을
못자고 비정 동정을 살폈다.

어떤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이미 안심할 수가 없었다. 여러 번 밤에 가로수색을 당한 적도
있었으나 그것은 집안에 남자를 숨겨 두고 있는지 없는지를 탐색하는 것이었고, 절코 리스크
에 처해 있는 인물일 찾이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사람을 체포하는 것도 駁雜이었고 지팡이에 차이끼니 만큼 체구이 승자여는 바탕에
될 수 있으면 남에게 알리지 않고 그 공훈을 목차지 하려고 하였다.

간수(看手)의 말

九월十三일 어느 사람으로부터 형무소에 의류를 차입하면, 만약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 찹 수하고 없으면 반환한다는 이야기를 루를 수가 있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바깥이론의 속내 의를 보자기에 서서 서대문 형무소의 문을 들어섰다.

이미 사람이 가득 차 있었다.

형을 통행을 아버지를 아들을 또는 누나를 이어나를 꿈려간 점점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 종일 이 대합실에서 우두커니 기다리고만 있었다. 그동안 간수들이 몇 차례나 순회하면서 선전을 했다.

「어려 분, XXXXX에서 형무소라는 것은 없우니다. 반동분자 정권하에서는 우리들의 애국자를 죽이기 위하여 형무소에 저어놓아 굶겨 죽이지만, 우리 XXXXX에 있어서는 그릇된 사상의 선도를 위하여 우리 XXX의 정의를 모르는 사람들을 교화하는 목적에서 즉 교화소에 입소시켰으니마치 대우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민주원에 두번씩 살벌을 주고 고기국도 나게 주니 영양도 충분할 것입니다. 오락도 레코드 등원 시중 끌고 있으니까 어려분은 조금도

걱정할 것 없이 우리를 밀이십시오. 일본은 사당발집으로 XX 민심을 배수하고 미국은 척은 밀가루와 초크레트로 우리 XX을 착취하려고 하였으나 우리의 위대한 (신파리) 민원수께서는 아무런 야심도 없이 오직 진정으로 우리 악소민(의 피로움을 구하고 계시니 우리들은 (신파리) 민원수의 은혜를 잊어선 안됩니다. 어려는 남부과 북부를 비교하여 어느쪽이 나은가는 상처동자도 잘 알 것입니다. 북부에선 어진은 벌써부터 해방이 되었고 남자와 동권입니다. 남부처럼 남자의 노예로서 가정에 매달려 있는 것과는 다른겁니다. 이 사실만 하여도 북선이 철친 진보적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어려분도 하루마리 이 강로에서 미귀(美鬼)를 내쫓아 그 암자이인 반도정권을 구속하여 자유로운 남북통일이 된 민주XX(民主XX)을 건설하도록 하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빼앗기고 아들을 짓밟혀 원한이 빠이 사물처 옮길을 금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에는 그마위 거짓 나팔은 오히려 마이동풍이요. 묵묵히 듣고 있는 것 같았으나 모든 심증은 반갑과 웃화로 가득 찾았다.

그리하여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수감자 명단 발표를 기다렸다.

7시경, 저우 명단을 손에 끌고 온 간수가 단상에 오르자 반갑은 어리본지 사라지고 마치 시험합격 발표를 보는 학부형의 기분으로 조조히 기다렸다.

그 이름들이 입에 오르자 기분 좋게 「네」 데답을 하고는 의기양양한 듯 차일한 보재기를 넘겨준다.

이름이 바친 사람들은 나심하여 금시라도 눈물이 쏟아질 지경으로 다음에 불리우는 이름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다음에는 마포형무소에 이장된 사람들이라 하면서 부르는 명단 속에 마침내 기다리던 박영(朴英)씨의 이름이 있었다.

나는 하여튼 바깥어른이 살아 계신 것을 알게 된 것만을 기뻐하며 집에 돌아왔다. 그러나 뒤에 알고 보니 이것이 모두 터무니 없는 허위로서 시종일관 그들이 조작해낸 거짓 명단이었다. 당시 그처럼 기뻐하였던 내 자신이 분방해졌을 따름이다.

간수의 말을 끝이 밀는 나는 다음날 마포형무소로 달려갔던 것이다. 형무소 근처에 이르자 통행금지로 그리운 접근할 수조차 없어 잊산으로 온라가 형무소 담을 끼고 물에서 정문쪽으로 나와보니,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사방 그림자라곤 하나도 볼 수 없다.

부근 사람들에게 물어 보았더니 풍습이 심해져서 오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날 이기 마포에까지 그야말로 생사를 무릅쓰고 찾아왔던 것이다.

인천상륙(仁川上陸)

「이 불려 더 걸어갈 기력조차 없이 되돌아오면 절에 친구집에 들렸다.
『이천에 상륙했네요!』

친구는 일본 방송을 척척 들었다고 하였다. 나는 광장집으로 달려갔다.
인천과 김포에 연합군이 상륙하였다는 이야기를 재빨리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해문이다.

그날부터 매일 우리는 연합국의 임성을 오늘인가 내일인가 하면서 고대하였더니 마침 19일엔 영동포까지 진출하였다는 뉴스 속에는 도무지 한강을 건너오는 기세가 보이질 않았다. 살값은 자꾸 올라 끌내는 한밭에 도천원이 되었다.

이대로 일출만 더 계속된다면 서울시민은 모두 굽어 죽을 길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밤이 되면 맹크 포 소리가 가까워지나 낮에는 잔잔히 떴다.

매일 밤처럼 진정에서 노역에 끌려 나가선 (파리케이트)를 만들게끔 되었다.
야밤중에 전차 소리와 트레일 헌진소리가 끊임 새 없다.

모든 물건이 복이로 복이로 운반되어 갔던 것이다.
형무소에 주금된 사람들을 데 사람석 둑에서 도보로 미아리고 개너리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거리의 여기 저기에 불길이 번처 큰 진물은 거한 대에 버렸다.

일제시대 이래의 중앙정도 대위 버렸고 남대문로 자선문사, 도서관, 학교, 병원, 경찰, 대포트, 박물관 등등 일일히 옮겨하기 어려울 만큼 그들은 회자에 있어 서울을 베하로 만들어 버릴 심산인 것 같았다.

동시에 우리 인사 가족의 학살이 자행되기 시작했다.

동대문 민청위원장이란 자가 내가 있는 아랫층에 이사해 왔다.

붉은 놈들은 개빨리 지하에 잠복하기 시작하였는데 아랫층에 이사온 그놈은 미상불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 끊임없었다.

큰 애를 엉고 빛문으로 빠져나와 다음날 사람을 시켜 보았더니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되론아 갖더니 저녁 무렵에 또 이번에는 주장(區長) 놈이 이사해 왔다.

이따금 두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쳤다.

그리고는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왔다.

밥의 시가전(市街戰)

벌써 거리의 큰 길가에는 전부 통행금지로 되어 (파리케이트)가 어마어마하게 구축되었다. 개미새끼 하나 열친 거리지 않는 거리는 그야말로 죽음의 거리였다.

이마금식 군인들의 몰풀이 어른거릴 뿐이었다. 어느쪽에서 싸우고 있는지 뉴스마다 봉장 키 어려웠다. 종로까지 왔다는 사람, 동대문까지 왔다는 사람, 사람마다 구구하였으나 시내에 들어온 것은 단연 끝없었다.

뉴파 귀를 놈들에게 끌어막힌 우리로선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다만 포성으로 어느쪽인가를 추측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모임, 다리 하나 사이로 떨어져 있는 거북의 신당동에서 「대한민국 만세!」의 목소리가 연발아 들려 온다.

내다보니 국군의 대형 맹크가 그쪽을 보고 운진하고 있다! 사람들이 손과 손에 잡적의 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짖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함락 소리도 못내고 다만 진나라 보지 않으면 안되었다.

피뢰군이 바로 열정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그날 저녁 사방으로부터 치열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성당에서 서로 내동는 대포에 점차로 주위는 불바다로 화해 버렸다.

밤이 깊어 갈수록 점점 불길은 운동 서울 시가를 뒤덮어 버리는 것만 같았다.

중우로에서 올지로 六가 신당동과 개천 저편 일대는 시꺼먼 회진(灰塵) 상태였다.

이쪽에서도 끗곳에 불점이 용솟음치며 타오른다.

동화원로 미난하니깐 모두 나오도록 말이 있었으나, 두 어린것을 데리고 밖에서 밤을 시걸을 생각하면 나잘 용기도 안났고 차라리 죽을 바에는 자다 죽는 것이 좋겠다 싶어 이불을 아랫층으로 갖다 끌고 어린것들을 채웠다 신경이 파로한 탓인지 밤이 되니 이내 잠이 들었다. 어린이들도 절숙한 잠에 들어 있다.

그러자 그때 윗층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 유리창이 부서지는 소리, 조마식지는 귀에 한마 소란스러웠으나 어느새 그대로 잠들고 말았다.

아침에 깨어보니 탄알이 一중 벽을 뛰어 풀고 지나간 구경에서 바람이 들어온다. 二七 일 저녁까지도 총성은 이어지며 피부어 왔었으나 저녁 여섯 경 금작스레 포성이 뚝 그쳤다. 계단을 이어가며 밖으로 나가보니 사람 그림자라곤 보이질 않는다.

내 가슴에 영원히

큰 길로 나섰으니, 모두가 저마다 「인생한다」「금강산」「북방이다」 아우성을 치면서 통대문 뿐으로 마구 달려간다. 나도 어려울 줄 알고 그 뒤를 따라갔다.

피뢰군의 숙소였던 큰 집은 보기 좋게 암탉이 시작되었다.

인간의 천박한 일면이다. 그러나 정교 三국월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것이다.

한 없이 미덥고 푸른 하늘 아래 대구기를 내쳤었다.
먼지가 캐캐 않은 속을 기를 떨어져어 헤코드를 물었다.

영군(榮一)도 경화(慶華)도 새 웃을 찾아 입혀 주고 뜻도 모르며 기뻐 날뛰다.

구시경 맹크 소리와 함께 전통하는 「금강대구 만세」의 아우성이 도처에 연달아 일어난다. 큰 길로 나가 봤다. 맹크 부대의 행진이다. 유령군도 모두 수령이 험수록 한 채 행군하며 온다.

한 어학쟁이 뛰어와서 활착 나의 손을 잡는다. 어어서 본 것 같으에 알 수가 없다.

「영교— 난 여자상이하고 충회(忠惠)에 나갔던 학생이에요.」

그제야 간신히 생각이 났다.

「박선생님은?」

나는 예전히 머리를 흔들었다. 눈물이 자꾸만 자꾸만 쏟아져 내린다.

아, 나는 살았구나 생각하는 한편으로 바깥이론의 행방이 관심이 되면서 처참히 놀들에게
끌려간 것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영일이가 작은 손을 치켜들며『국한민국 만세』를 부르짖고 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열광적으로 임인군을 맞아들었다. 국군의 모습이 여기 저기에 어울어
져 보인다.

한 노파는 금방 엎어질듯 달려가 주군의 한 사람을 깨닫이며 마구 호느껴우는 것이다.
「살아서 빼 얼굴을 다시는 못 보리라 했더니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군인도 호느껴 우는다.

외독자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죽은 줄로만 믿었던 노파를 근처 사람들이 오늘까지 위로해
온 것이라 한다.

살아온 사람도 있는 것이다.

기어코 이제부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백두 영봉(白頭靈峰)에 데죽기 히늘힐 해 아! 박 열(朴烈)씨도 돌아올 것이다.

그렇다, 박 열(朴烈)씨는 죽지 않았았다.

남은 내 가슴에 영원히 살아 있는 것이다.

살자! 굳세게 살아야 하리라!

님께서 돌아오는 그날을 오직 그날의 희망으로 그의 사업을 계속하자!

두번째 서울이 다시 불은 침략에 밟히다. 전날까지 나는 바깥이론의 소식을 알아내고자 백
방으로 수소문했으나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한채 1월 3일^{3.1} 광복 퍼나기 일은 서울을 절어
서 나왔다.

부산서 배를 타기 전에 뜻밖에도 박 열(朴烈)씨가 괴뢰군의 마수에서 벌출한 것을 보았다는 사람
을 만났다.

활활 내 회망의 불꽃은 용솟음 치다 올랐다. 비록 지금은 이역(異域)의 축을 밟고 있을 때
정내 마음은 언제나 조국의 하늘에 나르고 있으니 또한 그 하늘 아래서 충실히 공산도에 와
대결하는 고국 동포와 더불어 호흡하고 있다.